

Problems of Library Education in Korea

◇ 特 輯

우리나라 圖書館學 教育의 諸問題

朴 尙 均

東國大圖書館司書主任

새로운 圖書館學이 導入된지 於焉 20餘年이 되었다. 그간 各大學의 圖書館學科에서는 韓國圖書館學의 定着과 아울러 많은 人材를 養成해 왔다.

그러나 그 教育目的의 達成을 위해서 選定하고 組織 實踐한 教育課程이 實際에 있어서 어느 정도 所期의 目的이 達成되었느냐의 反省 및 檢討의 必要性은 教育課程의 새로운 計劃과 改善을 위해서 必然적인 問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 즉 커리큘럼問題는 여러 해 전부터 斯學의 關心事로 되어 왔다. 왜냐하면 教育課程은 全體教育計劃의 가운데서도 가장 重要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에 '도협월보'에서 이 問題를 特輯으로 다룬 것은 時宜에 적절한 企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教育專門家도 아닌 筆者가 이 教育課程 問題를 함부로 評價한다는 것은 甚히 猥濫된 것인 것만 같이 느껴진다.

이에 관한 研究로는 이미 1966년 12월호 '도협월보'에 金世翊 教授가 쓴 '韓國圖書館學科의 反省과 展望'이라는 論文이 있고, 1967년 6월호 '도협월보'에 轉載된 鄭駉謨 教授의 大學圖書館大會에서 發表한 '韓國圖書館教育의 反省'이라는 論文이 있다. 그리고 1970년도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인 姜富弼의 '韓國大學 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에 관한 研究'가 있다.

金世翊 教授는 同 論文에서 '延世大는 1學年에서는 專攻이 없는 것과 選擇科目이 많다는 것이 特色이고, 梨大에서는 現場實習을 重要視하고 있고 도큐엔테이션 講座가 있는 것이 特色이라 하였고, 中央大는 分類 編目을 重視하는 것 같고, 成大는 書誌分野와 日語에 相當한 比重을 둔 것 같이 보여진다. 그러나 4개 대학의 커리큘럼에 나타난 樣相은 모두가 거의 同一하다. 4개 대학이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한국의 大學 圖書館學科는 美國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美國人 教授 또는 美國에서 教育 받은 점에 비추어 美國式 圖書館學이 直輸入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韓國의 大學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을 檢討하고 再編成할 時期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한편 鄭駉謨 教授는 同 論文에서 '各 커리큘럼에서 보면 4개 學科가 공통적으로 도서관학의 體系內에서 비교적 均衡의으로 配定되어 있다. 다만 問題는 各 學科目을 어떠한 態度에서 어떠한 體系와 方法으로 教育을 實施하고 있느냐 라는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姜富弼씨는 同 論文의 結論에서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學 教育은 後進性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아직까지도 整理部門에만 置重하고 있는 교육이었다. 그러므로 現實社會가 요구하는 새로운 情報解釋과 分析論 및 컴퓨터의 조작등을 비롯한 도서관 機能化론에 力點을 둔 資料領域과 經營領域을 合理的으로 教育課程에 반영시켜야 한다'라고 主張했다.

以上の 3篇의 論文들의 要旨는 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을 再編해야 된다는 것을 強調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단기강습기관과 1년특수과정의 문제점

오늘 날 圖書館學界는 量的으로 볼 때 상당히 肥大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1974년에 慶北大學校에 圖書館學科가 新設되고 이어 1976년에 淑大에 圖書館學科가 또 생기므로써 圖書館學科가 있는 大學은 延世大·梨大·成大·中央大를 합쳐 6개 大學校로 늘었고, 慶北大學校·淑大를 除外한 4개 大學校에는 一般大學院 碩士課程이 있고, 延世大·梨大 두 教育大學院에도 碩士課程이 있으며, 成大에는 1974년부터 博士課程까지 두게 되었다. 한편 1970년에 부산여자실업전문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신설되고, 뒤이어 1971년에는 忠의여자전문학교에, 1974년에는 경북 계명대학 병설전문학교에 역

시 같은 해에 한국사회사업대학 병설전문학교에 각각 도서관학과가 생긴 것은 圖書館學界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추세는 圖書館學에 대한 일반사회의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오늘 날 圖書館學 教育機關은 6개 大學校, 4개 專門學校 이외에 成均館大學校 附設 韓國司書教育院 1년 특수과정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단기강습과정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教育機關도 아닌 國立中央圖書館에서 도서관법 제17조 5호 및 동시행령 제 5호의 규정에 의거, 準司書 資格取得을 위한 도서관학 강습을 실시해 오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그 강습의 목적을 보면 도서관의 專門職을 확보하여 각 도서관 운영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서관학 강습 실시요강을 보면 강습기간은 50일간으로 되어 있고 수강자격은 ① 각종 도서관 직원 중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도서관의 사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대학졸업자(학사학위 등록증 소지자) 또는 초급대학 졸업자(실업전문학교 졸업자 포함)로 본인이 희망하는 자. ③ 수강자 선발 방법은 국사 일반상식(도서관 실무관계 포함)이며 단 지원자 초과시에 한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필수과목으로 도서관의 조직과 관리·목록법·분류법·도서선택·참고업무 및 일반 참고자료 등 5개 과목이고 선택과목은 도서관학개론·서지학개론·도서관과 사회·도서 및 인쇄사·저작권법·고서목록법·비도서자료·도큐멘테이션·인문과학서지·자연과학서지·한국서지·시청각자료·근세한국주제별 사료·사서실습 등 14개 과목으로 그 중에서 4개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이와 같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단기강습과정은 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과 50일간의 단기강습만으로 그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소위 전문사서라고 하면 특수분야에 관하여 도서관 직원, 도서관 이용자, 사회기관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전문가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기관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불과 50일간의 전문사서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 「專門職」이란 개념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강자 선발방법이 사실상 무시험제와 다를 바 없는데 이것은 專門職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司書職의權威를 위해서라도 이런 과도기적인 도서관법은 이제 改正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韓相完 教授는 송의여자전문학교

도서관 학회지 창간호에 '전문학교 도서관학교육과 전망'이라는 論文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교육은 원칙적으로 교육기관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둘째 이 시점에서 과도기적 잠정조치는 이제 이 이상 계속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즉 각종 도서관의 실무자 내지 보조로서의 인력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전문학교 교육으로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중견사서의 배출을 위해서는 이미 5개대학 도서관학과가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으며, 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해서는 4개 대학원 도서관학과가 이미 개설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국립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준사서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단기과정은 그 임무를 더 계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라고 主張했다.

이 단기강습과정의 문제와 함께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 1년 특수과정에 관한 문제이다.

이 과정은 1년과정으로 입학 자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단기강습과정의 경우와 같으며, 다른 점은 50일 단기강습과정은 수료 후, 대학 졸업자의 경우라도 準司書資格을 주는데 대해, 이 1년과정은 수료하면 正司書資格證이 수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1년과정 역시 단기강습과정의 경우와 같이 현직자를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현상이겠지만 50일 단기강습의 경우처럼 형식상 입학시험은 치루지만 사실상 무시험제나 다를 바가 없다. 서류상의 결격사유만 없으면 거의 입학이 허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사서교육원의 교육 목적을 보려는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理論과 技術을 교육시켜 우리나라 教育文化 및 도서관 발전에 先導의 役割을 할 수 있는 훌륭한 司書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學問의으로 볼 때, 司書教育院에 入學이 許可되는 者는 司書로서의 資質을 갖추어야만 하고 語學 文學 其他 人文科學 社會科學 및 自然科學에 대한 충분한 知識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연세대학교 도서관학당의 입학 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 제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서교육원의 교과과정을 보면 1학기에는 자료조직법 I·참고업무·서지학개론·한국서지학·도서관운영론·도서관사·특수자료조직법·일본자료강독 I·한국자료강독 등 9개 과목을 이수하고, 2학기에는 자료조직법 II·관중별운영론·도서선택론·아동도서·주제별서지·일본자료강독 II 등 역시 9개 과목으로서 도합 18개 과목을 이수하게 되어 있다.

이들 履修科目을 수강하는데 있어, 고등학교 졸업자와 4년제 대학졸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같은 강의

실에서 수강과목도 같고 강의 내용까지 같을 뿐 아니라 이수 학점까지 같다는 것은 교육상 일대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년 수료 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準司書 資格을, 大學 卒業者는 正司書 資格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 준사서 자격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50일 단기 강습과정과 1년 특수과정 그리고 2년 전문학교과정이라는 세가지 길을 터놓고 있는 점이다. 이 세가지 방법중 50일 단기강습 과정은 9개 과목만 이수하면 되고, 1년 특수과정은 18개 과목을, 그리고 2년 전문학교 과정은 전공필수과목의 교양과목 및 선택교직과목까지 이수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행 도서관학 교육제도의 盲點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때문에 이러한 세가지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소위 전문사서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이처럼 엉성하고서야 어떻게 당초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싶을 뿐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과도기적 잠정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국립중앙도서관 단기강습과정과 성균관대학교 한국사서교육원은 이제 그 存置之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거듭 主張하고 싶은 것이다.

물론 해마다 수백명의 준사서 및 정사서가 배출되고 있는 현상은 도서관계를 위해 반가운 일이라는 하나 한편으로는 一線 司書들의 再教育의 必要性和 함께 사서직에 대한 專門性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하여 오늘 날 도서관계는 그 人力의 需給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反論을 提起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날 도서관계의 실태를 보려는 준사서 1명 끝에 정사서 5명이라는 비율로서 正司書數가 훨씬 많은 실정이어서 오히려 正司書보다는 準司書의 需給이 要求되고 있는 이때에 일부 준사서의 양성기관에 대한 존폐 운운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당돌한 처사라고 비난할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筆者 또한 準司書의 必要性을 否認하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準司書의 育成策의 一環으로서 現在와 같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단기과정과 한국사서교육원의 특수과정 대신에 전문학교 도서관학과를 잘 운영하는 편이 준사서 교육기관으로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 專門學校 圖書館學教育의 必要性

현재 전국에는 4개의 전문학교 도서관학과가 있는

데, 지역별로는 서울에 1, 부산에 1, 대구에 2개교가 있다.

교육법 제128조 6항을 보면 「專門學校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專門의인 知識과 理論을 教授하고 材能을 錬마하며 國家 社會의 發展에 필요한 中堅 職業인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專門學校 圖書館學科 教育은 圖書館界 中堅 실무인재를 養成하는데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학교 학생들은 자기 장래에 대한 어떤 目的意識부터 分明치 않은 것 같다. 그 원인은 학생들의 4년제 대학에 대한 僥倖感 때문도 있지만, 일반사회의 전문학교에 대한 인식이 잘 안되어 있는데 보다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고도의 학문을 연구하려는 목적이 아닌 한 되도록 전문학교에 진학하는 편이 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문학교라고 하지만 實際 業務를 處理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수업연한만 짧다 뿐이지 4년제 대학과 똑같은 教育課程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학교 운영자들은 이와 같은 社會의 誤된 인식을 正正시키기 위해서 먼저 校風부터 刷新하고, 우수한 教授陣의 확보와 충실한 교육과정의 편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전문학교 도서관학과와의 실태는 어떠한가. 어느 지방 전문학교의 경우는 한 교수가 무려 5개 과목을 맡아 강의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분류법·목록법·조직과 관리·정보학 등 5개 과목을 마라톤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딱한 사정은 교수의 부족 때문도 있겠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專門學校 教育課程의 內容을 보려는, 4개 專門學校의 教育課程은 體系의으로 統一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大學의 레벨에서 教育과정을 편성했다고 보아진다. 송의여자전문학교 도서관학과와 경우를 예로 들면 총 142학점 중에서 교양과정, 전공과정의 비율이 교양필수과목은 36학점, 전공필수과목은 106학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전문학교 교육이 대학교육 그 자체임을 입증한 교과과정의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 단기강습과정과 한국사서교육원 특수과정의 교육내용은 전공필수과목만 있고, 교양과목이나 교직과목은 없는 것 같다. 전문직 교육이라면 우선 범교양적인 지식이 있어야겠고 주제배경의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大學 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의 再檢討

4개 大學校 圖書館學科의 教育內容은 形式上으로는 큰 缺陷은 없으나 內容이 問題인 것 같다.

먼저 4개 大學校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학년	전공필수	학점	학년	전공필수	학점
2	圖書館學概論	3	3	情報管理論	3
3	兒童圖書	3	4	圖書選擇	3
2	漢籍選讀	2	4	情報文獻選讀 II	4
2	日本圖書	2	4	圖書館行政	3
2	分類概論	3	4	圖書館實務 I	2
2	圖書館史	3	4	日書選讀 I	2
2	英書選讀	2	4	韓中典籍	4
3	資料組織法	3	4	主題情報論	6
3	情報文獻選讀 I	4	4	古書目錄法	3
3	書誌學概論	3	4	圖書館實務	1
3	編目概論	3	4	中國現代圖書	3
3	情報科學	3	4	學校圖書館運營	3
3	古文選讀	4	4	公共圖書館運營	3
3	日書選讀 I	2	4	文獻情報特講	1
3	參考情報論	3	<1974~75년도 대학요람에 의함>		
3	圖書館運營論	3			
3	非圖書資料	3			

◇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학년	전공필수	학점	학년	전공필수	학점
2	圖書館學原論	3	3	漢書講讀 1. II.	3
2	分類와 目錄學 I	3	3	英書講讀 1. II.	3
2	圖書 및 圖書館史	3	4	韓國典籍解題	3
2	圖書館經營學 I	3	4	東洋典籍解題	3
2	音樂鑑賞	3	4	司書實習	1
2	美術鑑賞	3	4	文獻情報學	3
2	初級日書 1. 2.	3	4	特殊圖書館經營	3
2	參考奉仕	3	4	고서와 특수어자료의 정리	
3	分類와 目錄學 II	3	4	日書講讀 1. II.	3
3	圖書選擇	3	4	漢書特講 1. II	3
3	參考奉仕 II	3	4	英書特講 1. II	3
3	學校圖書館運營	3	계	20	
3	大學圖書館經營	3	<1973년도 대학요람에 의함>		
3	非冊子資料	3			
3	高級日書 1. 2.	3			

◇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학년	전공필수	학점	학년	전공필수	학점
1	基礎漢文	3	2	資料組織法 ①	3
1	圖書館學概論	3	2	圖書館史	3
1	原書講讀 I	3	2	原書講讀 II	3
2	參考調査法	3	2	兒童讀書指導論	3

2	日本資料 I	3	3	日本資料 III	3
2	韓國古典資料講讀	3	3	近代韓國主題別史料	3
2	古文書講讀	3	3	公共圖書館經營	3
2	音樂資料	3	3	金石學資料	3
2	人文科學書誌	3	3	視聽覺資料	3
2	社會科學書誌	3	4	韓國書誌	3
3	資料組織法 II	3	4	中國書誌	3
3	書誌學概論	3	4	古典資料組織法	3
3	圖書館組織管理論	3	4	非圖書資料組織法	3
3	資料選擇論	3	4	學校圖書館經營	3
3	文獻情報論	3	4	大學·專門圖書館經營	3
3	資料組織演習	3	4	自然技術科學書誌	3
3	日本資料 II	3	4	圖書館特講	3

選擇科目은 文理大 共通選擇科目 및 他學科 科目중에서 (1973년도 대학요람에 의함)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學年	專攻必須	學點	學年	專攻必須	學點
1	圖書館學概論	3	3	書誌學	3
2	圖書, 印刷, 出版의 歷史	3	3	情報科學	3
2	社會와 圖書館	3	3	社會科學書誌	3
3	分類	3	3	自然應用科學書誌	3
3	圖書館史	3	3	人文科學書誌	3
3	圖書館運營	3	3	韓國典籍解題	3
3	도서관과 매스미디어	2	3	韓國典籍解題	3
3	兒童 및 청소년도서	3	4	特殊圖書館運營	3
3	目錄	3	4	公共圖書館運營	3
3	圖書館과 資料	3	4	大學圖書館運營	3
3	參考奉仕	3	4	特殊資料	3
3	學校圖書館運營	3	(1973~74 대학요람에 의함)		
3	政府刊行物 및 著作權法	3			

以上과 같은 4개 大學校 圖書館學科의 教科課程表를 보건대, 全般的으로 科目體系가 순진히 學問으로서의 圖書館學體系는 아니고, 圖書館員의 養成을 위해 必要한 科目群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이 他學科에 비해 圖書館學科의 特徵이라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圖書館學이라고 하면 純理論科學이 아니고, 實用科學이라고 主張하는 學說이 더 支配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學說에 대해 異議를 提起하는 教授도 있는 것 같다. 圖書館의 特徵은 오히려 그의 研究方法이 어디까지나 哲學的이어야 하며 最後의 焦點은 人間을 思考케 하는데 있는 것이다 라고 反論을 펴낸 主張도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일층 넓은 基礎知識을 갖추어서 圖書館教育을 행하기를 바라는 의 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에 따라서는 圖書館學의 教育課程中, 社會 및 人間을 對象으로 하는 研究를 重要視하여 최근의 圖書館學의 커리큘럼에 명확히 反映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人間을 먼저 意識하고 教育課程을 編成해야 된다고 主張하는 教授들은 종래의 圖書館學은 하나의 技能이고, 狹意로

는 學問이 아니다라고까지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은 圖書館學課程에 대한 많은 意見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圖書館學의 發展을 위해 반가운 現象이 아닐 수 없다.

4개 도서관학과와 敎育內容을 綜合 검토해 보면 대개 다음의 三大項目을 中心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讀者에 대한 奉仕에 관한 事項인데, 이것은 圖書館과 社會, 커뮤니케이션, 讀者와 讀書의 研究, 圖書館의 資料 資源 등을 뜻하고, 둘째는 專門技術에 관한 事項으로서, 이것은 視聽覺敎育資料의 取扱, 目錄作成法, 綜合文獻目錄의 協同作業을 말한다. 셋째는 科學的 調查研究에 관한 事項인데, 이것은 圖書館의 目標, 施設, 制度, 弘報活動과 그 方法條件 등을 科學的으로 究明, 그것을 基礎로 해서 도서관 업무의 進展을 企劃 實現시키는 일이다.

이 三大項目을 中心으로 해서 大學別 커리큘럼의 特色을 보면 中央大와 成大는 둘째 項目인 專門技術에 置重한 경향이 있고, 梨大와 延大는 第1項과 第2項을 折衷한 듯한 敎育課程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科目別로 보려는 延大와 中央大는 1學年에서는 專攻이 없고, 選擇科目이 많은 점, 成大는 書誌分野와 日本語에 置重한 편이고 梨大는 圖書館經營에 많은 配定을 했으며, 그리고 中央大는 情報學에 큰 比重을 둔 것 같다. 그리고 成大와 中央大는 梨大·延大에 비해 그 科目名稱이 嶄新한 것 같다. 그 科目 內容까지도 새로운 것 인지는 모르지만 科目名稱에 상당히 神經을 쓴 것 같다. 예를 들면 成大와 中央大의 경우, 「分類·目錄法」을 「資料組織法」이라고 名稱을 달리 했고, 「參考奉仕」를 成大는 「參考調查法」으로 하고 中央大는 「參考情報論」으로 科目名稱을 새롭게 붙였다. 그리고 延大단은 書誌學概論·兒童圖書 科目이 없는 것이 特色이다. 그렇다고 4개 大學이 모두 두드러질만큼 어떤 特徵을 지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敎育課程만으로는 各科目이 意圖하는 바 敎育效果의 具體的인 內容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4. 圖書館學과 敎科書問題

圖書館學이 導入된지 20여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各科目에 대한 敎科書가 거의 없다는 것은 우리의 圖書館學研究가 他學問分野에 비해 體系的으로 統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이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는 圖書館學의 敎育課程을 改善하는 方向으로 統一과 調和를 이루는 것이 하나의 指標로서 생각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

우선 圖書館學關係 出版目錄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朴奉石編 朝鮮十進分類表

1947

(2) 朴奉石編 朝鮮東書編目規則	1947
(3) 朴熙永編 카타著者記號二位表의 使用法	1953
(4) 朴熙永譯 듀이十進分類法	1954
(5) 朴奉石編 朝鮮東書編目規則 改正版	1954
(6) 金重漢譯 듀이十進分類法	1955
(7)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圖書館規則規程集	1957
(8) 張一世著 學校圖書館運營論	1957
(9) 이재철저 동서저자지호표	1958
(10) 이재철연 한국참고도서해제	1958
(11) 이재철저 주제명표목의 연구	1959
(12) 김중한역 간이도서관자료목록법	1960
(13) 李春熙編 東書著者記號表	1960
(14) 李鍾文著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比較	1960
(15)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用語集	1960
(16) 金泰律譯 司書敎師엔드북	1961
(17) 劉永炫譯 圖書館學概論	1961
(18) 徐風延著 中高等學生 및 敎師들의 讀書傾向에 관한 조사 습관형에 관한 연구	1962
(19) 明在暉著 圖書館의 管理上 組織	1962
(20) 千惠鳳著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 諸問題	1962
(21) 白麟著 奎章閣藏書에 관한 研究	1962
(22) 張一世譯 美國國會圖書館記述目錄規則	1962
(23)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용어집	1962
(24) 李載喆譯 목록구직	1963
(25) 任鍾淳著 分類表比較研究	1963
(26) 李丙洙著 圖書分類理論	1963
(27) 韓國圖書館協會編 韓國十進分類法	1964
(28) 張一世著 學校圖書館運營指針	1964
(29) 學校圖書館研究會編 韓國圖書館研究	1964
(30) 韓國圖書館協會編 韓國目錄規則	1964
(31) 鄭駉諫著 圖書分類概論	1964
(32) 韓國圖書館協會編 學校圖書館施設	1965
(33) 安永柱著 韓國에 있어서 大學圖書館奉仕	1965
(34) 趙載厚譯編 새로운 學校文庫의 運營	1965
(35)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用語集·修正版	1966
(36)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修正版	1966
(37)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修正版	1966
(38) 金京一著 學校圖書館組織과 管理의 實際	1966
(39) 李載喆著 古書分類法原典	1966
(40) 白麟著 古書目錄規則	1966
(41) 沈鳴俊譯 圖書板本學要略	1966
(42) 韓國圖書館協會編 圖書館實務便覽	1966
(43) 金斗弘著 學校圖書館	
(44) 韓國圖書館協會編 公共圖書館의 施設	1966
(45) 韓國圖書館協會編 스탬페뉴얼例集	1967
(46) 安春根 韓國書誌學	1967
(47) 任鍾淳著 圖書館學概論	
(48) 孫成祐編 日本著者名便覽	1975
(49) 韓國圖書館協會編 主題標目表	1967

(50) 韓國圖書館協會編 非圖書資料의 整理	1968
(51) 金重漢著 學校圖書館*	1968
(52) 司空哲著 도큐멘테이션概說	1968
(53) 李丙洙著 韓國十進分類法解説	1968
(54) 張一世著 韓國目錄規則解説	1968
(55) 李喆珪著 圖書館의 組織과 管理	1968
(56) 李春熙譯 西洋圖書館史	1968
(57) 白麟著 韓國圖書館史研究	1969
(58) 金京一著 特殊圖書館	1969
(59) 張一世譯 公共圖書館運營	1969
(60) 국회도서관 사서국 도서분류법의 비교와 분류의 실제	1969
(61) 千惠鳳譯 東書用DDC(16판) 展開表	1969
(62) 국립중앙도서관연 선본도서해제	1970
(63) 千惠鳳著 古書分類目錄法 上·下	1970
(64) 孫成祐·李朝赫共編 洋書目錄法	1970
(65) 현대교육총서출판사편 學校圖書館叢書	1971
(66) 鄭駉謨譯 圖書館 및 文獻利用法	1971
(67) 沈喁俊譯 中國의 典籍	1971
(68) 韓國圖書館協會編 全國圖書館實態調査 上·下	1971
(69) 韓國書誌事業會編 韓國參考圖書解題	1971
(70)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韓國圖書解題	1971
(71) 李丙穆譯 大學圖書館	1972
(72) 鄭駉謨編 韓國文獻記號表	1972
(73)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韓國論著解題	1972
(74) 尹炳泰編 韓國書誌年表	1972
(75) 安春根著 藏書原論	1972
(76) 沈喁俊·劉俊鎬共譯 中國參考圖書解題	1972
(77) 金斗弘譯 國際十進分類法	1973
(78) 鄭駉謨 ISO Recommendation for Documentation	1973
(79) 金光永編 日本人名表記錄	1973
(80) 이재철저 東西著者記號表	1973
(81) 諸洪圭編著 韓國書誌學辭典	1974
(82) 李昌世著 國立圖書館論攷	1974

以上の目錄은 解放以後 現在까지 出版이 된 圖書館學關係文獻을 거의 網羅한 것이나 筆者의 調査未備로 漏落된 것도 더러 있을 것이다. 各種 目錄 및 索引類는 除外했다.

그런데 筆者가 調査한 이 82種 中에는 碩士學位論文을 다시 單行本으로 出版한 것까지 包含한 것인데 이들 3種의 碩士學位論文을 빼고 나면 現役教授들의 著書는 불과 14種 뿐이고 나머지 65種은 一線中堅司書들에 의해서 著述된 實務指針書들이었다.

이와 같이 圖書館學科의 教授들의 著作보다는 오히려 實務司書들에 의한 著述이 壓倒의으로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圖書館學의 研究領域이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錯覺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날 學

生들이 거의 教科書 없이 教授들이 配布한 프린트物이나 노우트에만 依存하고 있는 事實을 어떻게 說明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勿論 現在 學生들이 各種 學會誌에 發表된 教授들의 論文들을 많이 利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筆者의 寡聞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現在 各 圖書館學科에서 大學教授들의 著書를 採擇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一線實務司書들의 著述이 學生들에게 參考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理由로 해서 圖書館學教授들과 一線司書들간에는 微妙한 關係를 露呈시킬 때가 더러 있는 것 같다. 이러한 現象은 오늘 날 圖書館學理論이 우리의 文化的 社會現象에 잘 適應이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解釋될 수 있겠다. 이것은 圖書館學이 안고 있는 技能的인 面과 理論的인 面이란 兩面을 內包하고 있는데 그 主要原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結 論

圖書館學은 대단히 廣範圍한 知識, 특히 資料에 대한 書誌의 知識을 必要로 하므로 專門教育을 받기 전에 語學·文學 其他 人文科學·社會科學 및 自然科學에 대한 基礎가 있어야겠다. 그러한 意味에서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 단기강습과정과 성균관대학교 특수과정은 그 教育課程이 實務教育에만 局限되어 있어서, 圖書館學 커리큘럼의 全般의 目的에서 볼 때 그 教育課程에 缺陷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主題의 背景이 허술한 學生들에게 專門教育을 實施했을 때, 그 教育目的을 達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날 그렇지 않아도 司書職의 專門性을 疑心하는 경향이 있어서 一線司書들의 再教育問題가 一角에서 擡頭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準司書教育은 專門學校에 一任하고 正司書教育은 4年制大學에 맡기는 것이 相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教育課程은 學部의 경우, 1,2학년에서는 語學·教養科目만 配定하고, 3,4학년에 가서 비로소 專門教育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年制 專門學校 教育課程은 1學年에서는 語學 教養科目만 실시하고 2學年에서는 專攻科目을 履修하게끔 圖書館學 教育課程의 再編成을 提案하고 싶다.

그리고 20여년이 된 圖書館學이 아직까지 科目別 教科書가 거의 없다는 것은 우리 圖書館學의 理論的 體系가 서 있지 않다는 意味로도 볼 수 있으므로 圖書館學 教育의 體系的인 統合을 위해 하루 속히 圖書館學科 教授들로 構成한 圖書館學 教科書 編纂委員會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圖書館學 커리큘럼의 再編成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教育課程의 內質을 期하는 길을 摸索하는 일도 時急하다고 보는 것이다.